

상장사 불성실 공시 행태 여전… 개미들 속만 타들어간다

올 총 38건, 지난해 대비 52%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시엔
일시적 주가 하락·상장 폐지까지

거래소, 피해 예방 컨설팅 추진
고의 위반엔 페널티 강화 필요
단기간·제도적 해결은 어려워



/유투이미지

올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상장사 중 상당수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에다가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공시번복, 공시변경, 공시불이행 등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코스피 13건, 코스닥 25건 등 총 3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25건) 대비 52%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만 해도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지

난 20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는 등 총 8건에 달했다. 신라젠은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물질 ‘BAL0891’의 단일요법 및 항암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제1상 임상시험 계획(IND) 승인신청에 대한 내용을 지연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기타 화학제품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인 메카로는 유형

자산 취득 결정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 외에 ▲한국카본 ▲AJ네트웍스 ▲태광산업 ▲일야 등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이 예고됐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에 벌점을 매기는데, 1회에 4~8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5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1일간 매매가 정지된다.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격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

이들 기업이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거래정지 조치는 물론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지난 13일 대응제약과 대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각각 벌점 4점과 2점을 부과했다. 앞서 대응제약은 지난달 15일 불성실공시 법인 지

정 예고를 받았으며 대응은 지난달 17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대응과 대응제약은 지난해 9월 22일 메디톡스와 소송 가액이 기존 11억원에서 501억원으로 높아졌는데도 제때 공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거래소는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상장법인 공시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에 이어 ‘2023년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2020년 14개사, 2021년 18개사, 2022년 21개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7개사가 지정됐다.

특히 고의로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있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을 몰라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기업에 귀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의성이 있는 불성실 공시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어쩔 수 없이 공시 번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처벌만 강화하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은 “불성실공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제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영역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시와 관련된 그런 안내 프로그램들을 홍보해서 코스닥 기업들의 인식 자체를 성숙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中, 韓게임 외자판호 추가발급에 활짝 웃은 게임株

‘KRX 게임 K-뉴딜지수’ 20.87 ↑
실적 개선 기대에 주가 상승
중국 내 흥행 여부 확답 어려워

게임주가 중국발 훈풍에 들쭉이고 있다. 3개월만에 한국게임에 대한 외자판호 추가발급이 이뤄진 가운데 게임주 전체로 온기가 퍼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게임 K-뉴딜지수’는 20.87(2.88%) 오른 745.39에 장을 마쳤다. 해당 지수는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주요 게임기업 10개 종목을 담고 있다.

중국 내에서 국내 게임이 외자판호를 발급받으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KRX 게임 지수는 지난달 800을 넘어섰지만,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 속에 지난



16일에는 685선까지 급락했다. 그러나 중국 국가신문출판서에서 국내 게임 4개에 대해 외자판호를 발급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KRX 게임지수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5% 가까이 오르면서 KRX 테마 지수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판호 발급에 성공한 기업들의 주가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판호를 발급 받은 ‘일곱개의 대죄(사진)’의 경우 넷마블에서 로열티를 지불받고 있다.

넷마블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틀간 10% 이상 올라 6만5000원선을 넘어섰다. ‘쿠키런:킹덤’을 제작한 데브시스터즈는 이날 전일 상승분을 소폭 반납했지만, 지난 20일 대비 10% 이상 오른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외자판호 발급으로 게임업계 전체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전하고 있다. 이지는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직 판호를 받지 못한 게임주를 포함해 게임주 전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도 국내 게임들이 판호를 발급받은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에는 불과 3개월만에 12개나 되는 게임이 판호를 발급받았고 주기도 쏠라졌다”라며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국내 기업들에 대한

판호 발급 재개라는 구조적 변화가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호 발급 기업 외에도 국내 게임 섹터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리레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총 상위 게임 종목인 ▲크래프톤 +4.91% ▲엔씨소프트 2.50% ▲카카오게임즈 3.29% ▲펄어비스 5.50% 등 전일 대비 상승한 채 장을 마쳤다.

다만 판호발급과는 별개로 한국게임의 중국 내 흥행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지는 연구원은 “중국 게임 개발사들의 개발력에 따라 중국 게임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출시 초기에 과금이 높지 않은 BM(비즈니스 모델)으로 출시할 수 밖에 없어, BM 업데이트 이전까지 트래픽 유지 운영이 쉽지않다”고 했다.

/이영석기자 ysl@

젼백스링크 비대위, 주주연합 구성 내실화-위임장 대결

공동보유 지분 1188만7103주 공시
팩스넷경제티브이와는 약정 해제
SI와 300억원 규모 투자유치 맞손

젼백스링크 경영정상화비대위가 공동의결권 약정을 체결한 주주연합 구성을 내실화하고, 위임장 대결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대위는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승리할 경우 전략적 투자자(SI)로부터 300억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등 약정을 체결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비대위는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공동보유를 통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한 지분을 소액주주 88명이 보유한 1188만7103주(14.19%)라고 공시했다. 지난 15일 89명 보유주식 1261만9011주(15.07%)에서 0.88%포인트

(p) 감소한 수치다.

이는 기존 공동의결권 대상으로 참여한 소액주주 가운데 팩스넷경제티브이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팩스넷경제티브이의 전 모변호사가 주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인물 이어서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박강규 비대위 대표는 “순수한 소액주주 단체인데 코스닥 기업사냥꾼이 접근했다는 쪽으로 몰아가는 등 사측이 악의적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황정일 젼백스링크 대표이사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팩스넷경제티브이를 공동의결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또 비대위는 지난 15일 한 골프웨어 업체와 300억원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주총에서 주주 제안 안건으로 상정한 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될 경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회사에 3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라며 “회사의 본질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투자자가 증자대금으로 약속한 300억원은 비대위와 유바이오파트너스 등 주주연합체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채택하고 있는 주당 300원 배당안이 통과될 경우 집행될 배당금 총액(250억원)을 능가하는 규모다. 300억원 규모의 투

자유치가 실행되면 회사가 지난해 말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CB) 141억원을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박강규 대표는 “젼백스링크는 배당재원이 충분함에도 주당 300원을 배당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에 주총에서 이사회를 재편하고 주주 가치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강규 대표는 “해당 사례로 주주를 방문한 사람이 남긴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젼백스링크 본사 총무팀장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비대위를 사칭하면서까지 위임장을 수거하는 사측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젼백스링크 관계자는 “회사 측이 비대위를 사칭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무고,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ST 프렌즈’ 카카오·토스뱅크와 본격 토큰증권 구축

한국투자증권은 인터넷 전문은행 카오뱅크·토스뱅크와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 ST 프렌즈’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투자 ST 프렌즈’는 한국투자증권을 주축으로 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토큰증권을 기록할 분산원장(블록체인)의 금융기관 시범 운영 파트너로 참여한다. 또한 한국은행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카오엔터프라이즈가 분산원장 구축을 위한 기술 파트너로 합류한다.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제도화 추진에 따라 조각투자업체와 블록체인 기업을 내세운 협력체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이번 한국투자 ST 프렌즈는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첫 사례다.

한국투자증권은 연내 발행 분산원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후 한국투자증권의 발행 역량과 카오뱅크·토스뱅크의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상품 공급을 추진한다. 초기 생태계 구축이 완료되면 경쟁력 있는 조각투자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내 1위 토큰증권 생태계로 확장해 나간다는 목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토큰증권에 적합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발행 인프라 구축이 토큰증권 생태계 구성의 첫 걸음”이라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안정적인 IT인프라 기술력과 카오뱅크·토스뱅크의 플랫폼 경쟁력, 한국투자증권의 딜소싱으로 토큰증권 활성화와 양질의 상품 제공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석기자